

세브란스병원, 자체 평가팀 '세븐팀' 운영

국내 최초 JCI 인증과 30년 QI 노하우 담아 '지적' 보다 '개선' 중심으로 7개 전문 영역...의사·간호사 등 평가위원만 26명

세브란스병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평가와 관련해 독자적인 자체 평가팀 '세븐팀'을 발족했다.

세븐팀(SEVEN Team)은 세브란스(Severance)를 향상시킨다(Enhancement)는 의미를 담았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18일 ABMRC 유일한홀에서 평가 기준인 세브란스 스탠다드(Severance Standard) 내부 평가단 세븐팀(SEVEN Team) 발대식을 열었다.

세브란스스탠다드는 ▲환자안전 ▲환자진료 ▲검사체계 ▲의약품관리 ▲수술 및 시술 ▲감염관리 ▲시설관리 등 7개 영역별로 5~7개의 세부평가 기준으로 구성했다. 실제로 평가를 시행하는 세븐팀은 ▲팀을 총괄하는 리더와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 ▲행정을 지원하는 담당자로 이뤄진다.

각각의 팀은 영역의 특성에 따라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

사, 방사선사, 시설기사, 행정 사무원 등으로 구성했다. 나아가 평가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학회 참석이나 학술비도 지원한다.

'의료 질 향상' 활동인 QI(Quality Improvement)는 환자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병원의 핵심 활동이다.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투여하는 확인 절차,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부위와 수술명 재안내, 응급실 대기 시간 단축은 물론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점검도 모두 QI 활동의 일환이다.

세브란스병원은 1996년 적정진료관리실을 설립하며 QI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매년 'QI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환자안전, 표준진료·표준업무, 환자경험·고객만족, 행정업무개선 부문을 주제로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직

군의 아이디어를 모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켰다.

2007년 국내 최초 JCI 인증은 세브란스병원의 QI 노하우의 결실이다. 미국 의료기관 평가기구(The Joint Commission)가 주관하는 국제 의료기관 인증제도 JCI는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한다. 세브란스병원은 JCI 6회 연속 인증을 받으며,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적 향상의 국제적인 수준을 달성했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역량이 높아지며, 세브란스병원은 병원에 가장 적합한 차별화된 평가 지표들을 세우고 자체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세븐스탠다드 개발을 위해 병원 내규, 의료기관인증기준과 함께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그동안 진행한 각종 평가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했으며, 개



선 사항에는 구체적인 목표 수준을 명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담았다. 특히 고위험 영역과 취약 분야를 고려해 정기적인 검토와 최신 기준을 반영하는 업데이트도 빠뜨리지 않았다.

현장 평가의 원칙은 '지적'이 아닌 '컨설팅'을 모토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인증이 현장 간호사 등 환자 대면 부서에서 얼마나 데이터를 암기하고 있느냐 등을 평가했다면, 세

븐팀은 평가가 아닌 동료로서 실제 업무 현장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세브란스 스탠다드는 세브란스병원이 환자 안전과 만족도 증진에 대한 자생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매년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반영해 계속해서 세브란스 스탠다드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원, 2026년도 우수관리자 및 모범직원 시상식

의료원이 지난달 29일 우수관리자 시상식과 지난달 20일 모범상 시상식을 각각 진행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수관리자

세브란스병원 문상환 국제팀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덕원 재무회계팀장, 김명신 입원간호2팀장, 세브란스병원 김유라 외래간호팀 외래4파트장, 김영광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파트장, 연세암병원 정시진 외래간호팀 외래1파트장, 어린이병원 김민경 간호팀 87병동파트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최태욱 법무팀 법무미수파트장, 용인세브란스병원 백소희 입원간호팀 102병동파트장, 기획조정실 전필선 전략기획팀 기획파트장, 사무처 김현남 재무회계팀 회계세무파트장, 디지털헬스실 성현숙 데이터서비스팀 데이터서비스파트장, 치과대학 양성오 행정팀 교무연구파트장



모범상 수상자

의료원장상

개인 | 권미연(세브란스병원 진료운영팀), 김민아(영상의학과(검진팀)), 김유영(입원간호1팀), 김성기(입원간호3팀), 김애리(응급간호팀), 김선희(진료지원간호팀(소아

혈액종양과)), 우정희(수술간호팀), 문경희(중환자간호팀), 추성미(보험심사팀), 정동민(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팀), 김이진(외래간호팀), 심문희(재활병원 재활2팀), 김학영(심장혈관병원 간호팀), 이예은(심장혈관병원 간호팀)

(2면에서 계속)

고 원종목 동양엘리베이터 회장 에스에프에이 명예회장 40억원

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으로



고 원종목 동양엘리베이터 회장, 에스에프에이 명예회장이 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으로 40억원을 약정했다.

지난달 13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원 회장의 배우자 이연복 여사, 원준 후원자 부부, 원혜진 후원자, 원진 에스에프에이 부회장, 원동빈 군과 금기창 의료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김성현 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연복 여사는 "회장님께서 연세

의료원의 수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그 감사한 마음을 꼭 보답하고자 자녀들과 함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원종목 회장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셨던 나눔에 대한 송고한 뜻과, 가족분들의 뜻깊은 후원에 감사하며 환자분들께 치유의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중원 첫 한글 의학 교과서 '해부학',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교육의 출발점 상징...20세기 초 한글 표기 등 국어사적 자료 평가

근대 의학교육 체계를 보여주는 최초의 한글 의학 교과서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14일 제중원 한글의학교과서 '해부학'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1906년 근대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이 간행한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

최초 한글 해부학 교과서로 당시 세브란스병원의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선교 의료기관에서 사용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이 교과서는 인체 구조와 기능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교과서가 서양 의학이 국내에 도입되던 초기 교육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과학적 이해

를 바탕으로 근대 의학 교육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의학 교육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중요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심장을 '염통'으로, 위를 '밥통'으로 표기하는 등 서양 의학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낸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

해 근대 의학 지식이 우리말로 번역되고 대중화되는 과정, 20세기 초 한글 표기법과 음운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어 국어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했다.

해부학은 앞으로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

의료원이 지난달 14일 세브란스병원 병원장실 회의실에서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등 의료원 보직자와 김현숙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염민섭 한국보건정보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는 연구자가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데이터

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대책을 갖춘 안전한 분석 환경이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권역별로 안심활용센터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센터는 민감한 의료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안 분석 전용 공간으로, 연구자는 기관 자체 데이터뿐 아니라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서 9번째로 문을 연

이번 센터는 대규모 임상데이터와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수도권 보건의료 연구 수요 충족과 의료데이터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상·진료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심층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기관 협력연구,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및 신약 개발, 정밀의료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이강영 병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의료 분야에서 AI 활용을 앞당기고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우수 공동연구단(컨소시엄)으로 선정되는 등의 의료데이터 활용 역량을 인정받았다.

용인, 신축 6주년·개원 43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열려

병원 역사 퀴즈 이벤트, 인문학 특강 등 기념 주간행사 운영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신축 6주년, 개원 4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달 27일에는 병원 4층 대강당에서 '43년의 헌신, 6년의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축 6주년 및 개원 43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는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

장과 박진영 1부원장, 조덕규 2부원장 등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예배에서는 정영준 목사의 성경 봉독, 박진오 병원장의 기념사, 참석자 전원의 결단 찬송 및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의 주요

역사를 퀴즈로 알아보는 '용인세브란스 역사 챌린지'를 진행했다. 문제를 모두 맞힌 교직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했다.

21일에는 병원 4층 대강당에서 교직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서는 '먼나라 이웃나라' 저자 이원복 교수가

'톱을 넘어서(Over the TOP)'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진오 병원장은 예배 기념사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이 43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직원의 헌신과 지역사회와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이라며 "신축 이전 후 6년간 고도화해온 시스템을 토대로, 용

인특례시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983년 한국과 독일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용인시 처인구에 개원했다. 이후 1992년 종합병원 승격, 1993년 광주세브란스병원과의 통합을 거쳐 2020년 3월 용인시 기흥구에 신축 이전한 뒤, 다양한 디지털·인공지능(AI) 솔루션을 진료·행정에 접목하며 스마트병원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면에 이어> 의료원, 2026년도 우수관리자 및 모범직원 시상식

문재훈(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조금식(어린이병원 간호팀), 이정화(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수석부장실(심장혈관외과)), 이순현(입원간호1팀), 강혜진(입원간호2팀), 성혜민(수술간호팀), 최수영(법무팀), 김현정(보험심사팀), 김미영(용인세브란스병원 외래응급간호팀), 윤혜진(입원간호팀), 장민정(홍보팀), 임선열(보험심사팀), 소경준(인재경영실 인사운영팀), 방호균(디지털헬스실 정보서비스팀)	스병원 원무팀 협력업체 ㈜Ktis(진료예약센터), ㈜케이애파크(취원엔비전(미화)) 단위기관장상 개인 김현준(세브란스병원 기획예산팀), 송은주(진료협력팀), 주은실(정형외과), 황지명(영상의학2팀), 박진주(감염관리팀), 천상구(병리팀), 김문수(의공기술팀), 노현정(의무기록팀), 김송이(임상연구관리실 사무팀), 박신영(임상시험센터), 서아영(외래간호팀), 황혜림(외래간호팀), 정주희(행정교육팀), 변이정(입원간호1팀), 유태경(입원간호1팀), 김하나(입원간호2팀), 공지은(입원간호3팀),	김예린(입원간호3팀), 이종락(입원간호3팀), 왕지민(V팀), 안정현(진료지원간호팀(재활의학과)), 김정은(수술간호팀), 최정인(수술간호팀), 이소영(중환자간호팀), 장은혜(중환자간호팀), 이연환(외래원무팀), 이승진(세브란스병원 법무팀), 이하나(연세암병원 기획경영팀), 최락진(기획경영팀), 김성국(방사선중앙학팀), 진유미(입원간호1팀), 김정화(입원간호2팀), 김수민(특수간호팀), 김도희(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김영민(간호팀), 김해림(간호팀), 윤미경(간호팀), 서장호(경영지원팀), 문창진(안과병원 경영지원팀), 강태인(어린이병원 간호팀), 김은영(중증	소아재택의료팀), 이창현(영상의학1팀), 하정숙(진료지원간호팀(소아정형외과)), 박은영(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권유훈(재활의학팀), 기준영(간호수석부장실), 김수빈(외래·응급실간호팀), 이다미(외래·응급실간호팀), 이유나(외래·응급실간호팀), 오나영(입원간호1팀), 오지선(입원간호1팀), 김민정(입원간호2팀), 이수용(입원간호2팀), 전소영(입원간호2팀), 김영수(수술간호팀), 김일균(수술간호팀), 이주현(수술간호팀), 임성규(총무팀), 정지윤(용인세브란스병원 방사선중앙학팀), 김동익(영상의학팀), 이보라(외래응급간호팀), 신연주(입원간호팀), 조아라(입원	간호팀), 차신혜(입원간호팀), 강주희(특수간호팀), 홍세미(특수간호팀), 권혁윤(행정교육팀), 김슬기(행정교육팀(정형외과)), 권태균(시설팀), 서혜원(치과대학병원, 영상치의학과), 안초롱(기획경영팀), 박성후(기획조정실, 경영분석팀), 엄지현(인재경영실, 조직문화팀), 박모경(보건대학원, 행정팀), 이민철(의과대학, 행정팀), 심영선(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부서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팀 일반환영파트, 중환자간호팀 외과계 중환자파트, 연세암병원 입원간호1팀 105·106병동,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중앙학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외래응급간호팀 외래파트
--	---	--	---	---

후성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 안구 세포 회춘 청사진 제시



의대 이준원 교수(강남 안과), 하버드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David Sinclair) 교수

공동 연구팀이 노화된 눈의 세포를 젊게 되돌려, 녹내장과 황반변성 등 난치성 노화 안질환을 치료하는 '후성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체계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망막 및 안구 연구 학회지(Progress in Retinal and Eye Research, IF 14.7)' 최신호에 게재됐다.

시각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망막 세포는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 노화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전 세계 실명 원인 1, 2위인 녹내장과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핵심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노화에 따른 퇴행성 안질환은 치료법이 힘든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최근 노화의 핵심 기전은 DNA 손

상이 아닌 유전자 발현 스위치의 오류인 '후성유전학적 변화'라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다. 시스템을 초기 상태로 복원하듯 노화된 세포도 젊은 시절의 유전체 정보로 되돌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종설 논문에서 핵심은 과거 진분화능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야마카가 인자(OSK)를 활용해 세포의 늙고 병든 흔적만 지워내는 이른바 '세포 회춘' 기술이다. 실제 싱클레어 연구팀은 전임상 모델에서 이 기술을 적용해 부작용 없이 노화로 저하된 생쥐의 시

력을 되돌린 바 있다.

연구팀은 노화된 망막 신경세포에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하면 세포의 재생 능력이 복원되면서 손상된 시신경의 축삭 재생장과 시야 복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인체 임상시험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밀한 치료 용량 설정 기준을 정립하고, mRNA, 엑소좀 등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분석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기반 '망막 연령 바이오마커' 도입 등 임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난 1월 미국 FDA는 녹내장과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대상으로 후성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 치료제의 인체 대상 임상을 세계 최초로 승인하는 등 실질적인 치료 임상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준원 교수는 싱클레어 교수와 함께 노화 역전 개념을 이용한 안과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온 연구자로, 현재 황반변성 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세균 부착 막는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소재 개발



성학준



이강석



김요한



조성우



김주은

의대 성학준·이강석·김요한(의학공학), 조성우(인생명과학부) 교수, 김주은 학생 연구팀이 최근 몸 안에 심는 의료기기에 세균 부착을 막는 소재를

만들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스몰(Small, IF 12.1)'에 게재됐다. 스텐트, 카테터 등 이식형 의료기기

에서 생기는 바이오필름(Biofilm, 세균막)은 세균이 표면에서 군집을 이뤄 항생제조차 침투하기 어렵게 하는 막을 가리킨다. 항생제가 반응하지 못하

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 만성염증의 원인이다.

연구팀은 온도에 반응해 초기 설계한 형상대로 복원하는 형상기억고분자(Shape Memory Polymer, SMP)를 활용해 세균 부착을 저해하는 항바이오필름 플랫폼을 구현했다.

형상기억고분자는 고분자 사슬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상과 사슬의 운동성이 자유로운 비정질상이 공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연구팀은 형상기억고분자를 의료기기로 적용하기 위해 반응온도를 체온에 맞게 설계했다. 형상기억고분자 내에 결정들은 반응온도인 체온에서 반복적인

형상변형, 회복에 의해 점차 균일하고 정렬된 결정으로 재배열한다.

표면 결정 틈이 세균 크기(0.5-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게 줄어들어 세균이 물리적으로 붙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 바이오필름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고분자에 움직임을 가할수록 세균 부착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또 실제 담도를 고분자 플랫폼으로 교체한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결과 1년간 바이오필름 현상이나 다른 장기에 협착하는 부작용이 없었다.

젊은 조기 유방암 환자의 조직학적 등급 고려 유효성 규명



안성귀



배송준

의대 안성귀·배송준 교수(강남 유방외과)가 폐경 전 50세 이하 유방암 환자의 보조항암치료 결정을 도울 근거

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외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10.3)' 최신호에 게재됐다.

호르몬수용체가 양성(HR+) 이면서 성장인자 수용체가 음성(HER2-)인 경우가 유방암 환자 10명 중 6-7명을 차지한다. 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조항암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암세포 성장 속

도와 조직학적 등급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팀은 201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온코타입 DX 검사를 받은 3000여명 중 최종 1944명에 대한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50세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재발 예측 점수별로 세분화하고 각각 암세포 등급에 따라 재발이 없는 기간을 살폈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조직학적 등급이 높을수록 재발을 겪지 않고 지내는 기간(RF)이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폐경을 겪지 않은 50세 이하 환자군에서는 고등급 환자들이 저등급 및 중간 등급 환자보다 재발 없이 지내는 기간이 확연하게 짧았다.

50세를 초과한 환자군에서는 고등급 환자군이 저등급 또는 중간 등급 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온코타입 DX 검사에서 11~25점을

얻은 50세 이하 여성 802명을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세분화해 관찰한 결과, 고등급에 속하는 집단은 림프관 침윤, 높은 Ki-67 발현, 항암치료 시행 같은 좋지 못한 임상·병리학적 특징과 연관성이 높았으며, 재발 없이 지내는 기간도 짧았다. 고위험군에게 영향을 미친 조직학적 고등급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위험비 6.96을 기록해 불량한 예후를 가져오는 독립 예측 인자로 작용했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11~25점대 50세 이하 여성 그룹에서 고등급이 불량한 예후로 이어지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대, 핀란드 헬싱키대와 '박사과정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의대 대학원 의과학과·BK21 연세첨단과학기술교육연구단이 최근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와 학술 교류를 위한 연세대-헬싱키대 박사과정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의대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세브란스병원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헬싱키대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등 15명이 방문했으며, 의대의 과학과 소속 교수와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교 차세대 연구

자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 공동 연구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발표 세미나 ▲교수진 강연 ▲연구실 투어 ▲의료원 및 캠퍼스 견학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환영 및 송별 만찬, 저녁 네트워킹 활동 등 양교 구성원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 발표 세미나에서는 두 기관 대학원생들의 연구 주제를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헬싱키대학교는 '정밀 암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연

구 내용을 공유했으며, 의대는 암 연구를 포함한 의과학 분야 전반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교수진들의 강연과 관심 연구 분야가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매칭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연구실 투어 세션에서는 학생들이 사전에 희망한 연구실을 직접 방문해 실제 연구 환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는 동물실험실 등 최첨단 인프라를 참관하며 의대의 우수한 연구 환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

졌다.

행사를 주관한 신전수 대학원 의과학과 주임교수 겸 BK21 연세첨단과학기술교육연구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양교 대학원생 간 자발적인 소통을 토대로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공동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대학원생들이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점이 장기적으로 글



로벌 연구 협력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의과학과·BK21 연세첨단과학기술교육연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미래 의과학계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제10회 세브란스 젊은 의학자상 시상식

기초·내과계에 흥남기 교수, 외과·지원계에 김덕기 교수

의대 흥남기(내과학), 김덕기(외과학) 교수가 지난달 19일 서암강당에서 제10회 세브란스 젊은의학자상을 수상했다. 흥남기 교수는 근감소증, 골다공증 등 대사·내분비질환 연구를 수행하며, 2021년부터 해당 분야 상위 10% 이상의 논문 총 11편을 발표했다.

김덕기 교수는 생체 간이식 연구를 진행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분야 상위 10% 이상의 논문 9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였다. 심사위원장인 최재영 의대학장 등 심사위원들은 두 교수의 연구가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만족시켜 사회

적 영향력과 학문적 의미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세브란스 젊은 의학자상은 2017년 이은진 전 의대학장의 기부로 제정됐다. 탁월한 연구업적을 발휘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만 45세 미만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최근 5년간 SCIE 출판물 상위 10% 이내 주저



자의 연구논문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해 부문별 각 1명의 교수를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이번 시상부터는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 분야를 기존 45세 미만 의대 교

수 1명에서, 기초·내과계, 외과·지원계로 세분화하고 각 1명씩 총 2명을 선정한다. 아리바리오 정재준 회장의 기부로 시상 대상이 확대됐다.

우현학술상에 현혜경 교수

제33회 우현학술상에 의대 현혜경 교수(용인 소화기내과, 사진 왼쪽 두번째)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내과학교실은 지난달 28일 종로구 한식당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임상분야 수상자인 현 교수는 혈소판감소증 환자가 대장 용종절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혈소판 수치 기준을 제시한 연구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환자 1만 6852명에 대한

4만 1930개의 대장 용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주로 진단내시경이나 조직검사 수준에서 필요한 기준만 제시해 실제 용종절제술을 할 때 어느 정도 혈소판 수치가 안전한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연구팀은 혈소판 수치가 90,000/ μ L 미만일 경우 시술 직후 출혈 위험은 267배 높아지며, 시간이 지나 발생하는 지연 출혈 위험은 966배 높아진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위험이 낮은 시술은 90,000/ μ L 이상, 20mm를 초과하는 큰 병변을 제거하는 점막절제술이나 점막하바리술처럼 출혈 위험이 높은 시술은 100,000/ μ L 이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혈소판 수혈 여부, 예방적 지혈술, 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비열적 절제법, 항혈전제 복용 재개 시점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혈소판감소증 환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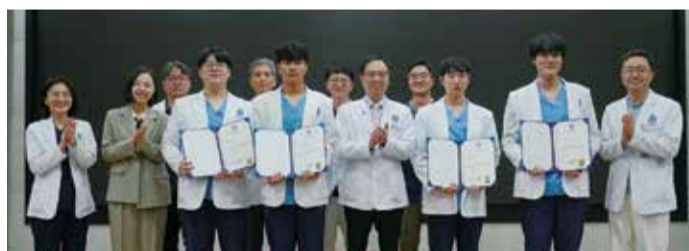


대장 용종절제술에서 환자 상태와 시술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현학술상은 1993년 최흥재 연세대

명예교수가 학술상 기금을 쾌척해 시작됐다. 명칭은 최흥재 명예교수의 호를 따 제정됐으며, 내과학교실원의 연구 논문 중심시를 통해 가장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치대, '2026 특성화 선택과정 발표회'

치과대학은 지난달 20일 ABMRC 유일한홀에서 교수 및 학생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특성화 선택과정 발표회'를 개최했다. 치대 특성화 선택과정은 정형화된 치의학 교육에 다양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치의학과 연관된 관심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폭넓은 시야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치의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사회 각 분야로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 선택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 2주간 스스로 선택한 치의학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현장 체험과 배움 활동을 진행한다. 발표회에서는 2025학년도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특성화 선택과정을 수행한 학생들 중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4명의 학생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우수 활동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함께 이뤄졌다. 발표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각 도호쿠대학교, 오스틴입플란트, 엠코, 법무법인 광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도호쿠대학교에서 활동한 학생은 일본의 치과 임상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고, 오스틴입플란트와 엠코에서 활동한 학생들은 치과 임상 및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수행했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한 학생은 향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의료·법률 관련 지식과 실제 사례를 배우며 치의학과 법률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정영수 치대학장은 "특성화 선택과정은 학생들이 치의학의 다양한 분야를 직접 경험하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미래 치과의사로서의 역량을 다각도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 공과대학교 공동 학술 심포지엄 성료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5일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공과대학교 '2026년 상반기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첨단 의학과 현대 공학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의 혁신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세션은 공과대학 이용민 연구부학장이 좌장을 맡아 의대 최보규 교수(강남 신경과의) '뇌전증에서의 멀티모달 딥러닝 연구', 의대 박미나 교수(강남 영상의학과)의 '뇌 MRI를 이용한 수막 림프계 및 영상화', 공대 전기전자공학과 이상훈 교수의 '저비용 카메라를 사용한 주성분 분석 기반의 3D 안면 가상 성형수술' 등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최신 공

학 기술과 딥러닝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제2세션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재열 연구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공대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가 '세포 계면 및 미세 환경의 물리 공학'을, 의대 민경현 교수(강남 성형외과)는 '환자 맞춤형 유방 실리콘 임플란트'를, 공대 전기전자공학과 김동현 교수가 '대뇌 미세출혈 검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을 발표했다.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의학·공학 간의 실질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두텁게 하고, 혁신적인 융합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대, BK21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간호대학 BK21 S-LEAP 미래간호인재 교육연구단이 지난달 18일 진리관에서 '2026년 제3차 BK21 해외학자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동문의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연구 동향과 미래 간호 연구 방향

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간호대 교수진을 비롯해 대학원생, 연구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건강과 디지털 헬스, AI 기반 간호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대학 동문 제인 정 교수가 주요 연자로 참석했다. 최근 미국 국립의학아카데미가 선정한 '2026 보건·의료 분야 차세대 리더 (ELHM)'로 선정되며 학문적 영향력을 인정받기도 한 정 교수는 노년기 건강

을 일상생활 속 행동·음성·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하고 측정하는 연구 흐름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BK21 S-LEAP 미래간호인재 교육연구단은 앞으로도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간

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의료 분야 특화 AI 개발 나서

루닛과 MOU...의과학 파운데이션 모델로 향후 의료현장 적용 계획

세브란스병원이 의과학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의료AI 개발과 연구, 임상 확산에 나선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14일 병원장 회의실에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김어수 연구부원장, 임준석 디지털헬스실장, 서범석 루닛 대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과학 파운데이션 모델은 방대

한 의학 논문과 임상데이터,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학습한 의료 분야 특화 AI 모델이다. 이 AI 모델은 진료 보조, 병원 운영 지원 등 여러 목적에 맞는 응용 AI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응용 AI를 함께 개발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해 사업화와 의료 현장 확산까지 단계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과학 파운데이션 모델의 임상 및 운영 분야 응용 시나리오 발굴 ▲의과학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응용 AI의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개발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협력 및 공동 과제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치료는 물론 연구로 국내 의료 발전을 이끌어 온 세브란스병원은 의과학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AI 개발 후 이를 진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라며 “세브란스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AI 기술의 시너지를 만들어 진료 효율을 높이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원, 국무조정실과 국제보건 분야 전략 나뉜

제중원보건개발원 국제개발센터가 지난달 20일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신기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장과 염준섭 제중원보건개발원장, 한희중 국제개발센터 소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단장 겸 국가첨단백신개발 이사장, 김소운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윤문수 열대의학연구소 글로벌보건안보부장

김진남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보건 분야 개발협력(ODA) 전략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안신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 연계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연구원들의 연구 연속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진남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보건 ODA는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글로벌 보건안보와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연대와 혁신을 기반으로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협력국 맞춤형 보건 정책 지원 및 역량강화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글로벌 보건협력 선도 ▲상생형 국제 파트너십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성백린 교수가 말라리아 및 결핵 퇴치 등을 위해 국내 백신 개발 역량으로 글로벌 문제해결 방안을, 염준섭 원장이 해외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한희중 센터장은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지속가능한 국제 네트

워크 파워 전략을 발표했다. 윤문수 교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인 AI-ICT 기반 디지털헬스 이행 전략과 정부의 사전 구매 보장 및 WHO PQ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형 디지털헬스와 의료가기·백신 협력 모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진료협력 최우수상에 홍명기, 남기현 교수

세브란스병원은 19일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2026년 진료협력 우수 교수' 시상식을 진행했다.

진료협력 우수교수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1년간의 진료협력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진료협력 실적은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 의뢰 예약 건수, 회송 협진 의뢰 건수 등을 점수화 및 합산해 평가한다. 내과에서는 홍명기 교수가 최우수상에, 김혜경 교수와 김희만 교수는 우수

상에 선정됐다. 외과에서는 최우수상에 남기현 교수가, 우수상에는 이용승 교수와 김성훈 교수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은 효과적인 환자회복과 회송을 위해 폭넓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진료협력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 및 의료진 어린이병원 방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지난달 13일 4층 돌모루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보건부 및 오희마디트 국립아동병원 대표단을 초청해 병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재활·영상·정형 분야 의료서비스 운영 환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크라이나 국립아동병원 관리자들의 병원 운영 역량강화와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에는 우크라이나 보건부 국제협력 관계자와 오희마디트 국립아동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어린이병원 소개 발표를



들은 후 질의응답을 했으며, 이후 어린이병원과 재활병원 주요 시설을 둘러 보았다. 현장 견학에서는 어린이병원 소아영상촬영실, 소아심리실, 소아정형외과치료실 등 재활병원 내 여러 치료 공간을 살펴보고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중심 진료 환경과 다학제 협력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3rd Avison Biomedical Symposium 2026

Digital Medicine in Mental Health

6월 11일 목요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 6월 12일 금요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

O.R. Avison, 1860 - 1956
The Founder and first dean of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사진신청 접수

DAY 1. 2026년 6월 11일 (목), 연세대학교, ABMRC 1층, 유일한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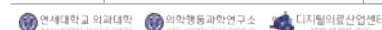
09:30-09:50	개회사 환영사	최재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진영 (심포지엄 조직위원장)
KEYNOTE	Digital Medicine in Mental health	좌장 정영철 (연세대학교)
09:50-10:50	Digital Medicine: New Horizons for Mental Health	Adam Gazzale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SESSION 1	Digital Phenotyping	좌장 김재진 (연세대학교)
	Understanding Well-Being Through Digital Phenotypes and Place	Peter J. Rentfrow (University of Cambridge)
	The Hidden Value of Active EMA: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Response Dynamics and Mental Health	정경미 (연세대학교)
11:00-12:40	The Use of Idiographic Modeling of Digital Data to Personalize Mental Health Treatments	Emily K. Presseller (Dartmouth College)
	A Journey Toward Digital Precision Medicine: Leveraging Smartphone-Based Digital Phenotyping and EMA	박진영 (연세대학교)
12:40-13:50	점심시간	
SESSION 2	Neuromodulation/Digital Therapeutics	좌장 석정호 (연세대학교)
	Home-Based IDCS: Clinical Implementation and Scalable Delivery	Leigh E. Charvet (NYU Langone Health)
13:50-15:40	Home-Based IDCS with Passive EMA Monitoring: Real-World Outcomes in Perinatal Mental Health Care	조희영 (서울대학교)
	Digital Therapeutics for Perinatal Mental Health: Insights from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정경문 (기림박물관대학교)
	Digital Health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and Young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김은주 (연세대학교)
SESSION 3	Regulatory Approval	좌장 이은 (연세대학교)
	From Code to Clearance: Navigating the Approval Journey of Digital Mental Health Technologies	신재용 (연세대학교)
15:50-17:10	From Clinical Insight to U.S. Market: A Physician-Founder's Experience in the U.S. Market	Kazu Okuda (Universal Brain Inc.)
	The German DIGAs: Implementation, Clinical Use and Advice for Launch	Stefan Gutwinski (Charité University Medicine Berlin)

☎ 본 심포지엄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발표자는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AI 기반 실시간 디지털 통역 지원

DAY 2. 2026년 6월 12일 (금), 용인세브란스병원 4층 대강당/세미나실, 5층 대회의실

SESSION 1	Smart Hospital: Where Digital Innovation Meets Clinical Excellence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10:00-11:30	Clinical Innovation in Action: A Guided Walkthrough of Smart Hospital Infrastructure and Solutions				
SESSION 2	From Research to Market Through Smart Hospital-Industry Collaboration				사회 김나영 (연세대학교)
11:40-11:50	환영사 격려사	박진영 (심포지엄 조직위원장)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	김수정 (연세대학교)		
	Collaborative Efforts with Industry for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Hospitals				
	Beyond Pharmaceuticals: Real-World Applications of Electroceuticals and Brain-Computer Interfaces				이기원 ((주)와이브레인)
	Precision Psychiatry Through Measurement: Bringing Objectivity to Mental Health Treatment				Kazu Okuda (Universal Brain Inc.)
11:50-13:30	EMA-Powered Mental Health Platform: From Digital Phenotypes to Smart Hospital				이지명 (디지털메디(주))
	The Future of Social AI Robot: From Research to Market Through Smart Hospital-Industry Collaboration				김지희 ((주)오돌)
	From Biosignals to Beside: Clinically Validated AI for Early Detection of Clinical Deterioration in the ICU				윤덕용 (연세대학교)
13:30-14:00	점심시간				
SESSION 3	Small Group Networking with Experts, Industry, and Young Investigators				
초대 연자	3A Implementation 정두영 (아이스) & 강성지 (메트(주)) 조성자 ((주)뉴디아이브) & 민정상 ((주)이모티브)	좌장	3B_1 Neuromodulation 박재섭 (연세대학교)	3B_2 Digital Therapeutics 김우정 (연세대학교)	3B_3 Digital Phenotyping 윤덕용 (연세대학교)
14:00-16:10	특별대담 Translating Digital Medicine from Lab to Practice Adam Gazzale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초청강연	Leigh E. Charvet (NYU Langone Health)	Stefan Gutwinski (Charité University Medicine Berlin)	Emily K. Presseller (Dartmouth College) Peter J. Rentfrow (University of Cambridge) 박진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용상 (서울대학교)	Nikolaos Tsamirou & Alva Lütj (Charité University Medicine Berlin)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및 미래 연구 방향에 관한 구두발표 및 토론



김종원 기전산업 회장 3억원

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김종원 기전산업(주) 회장이 최근 사재를 출연해 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3억원을 후원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종원 회장, 손흥규 의원원 대외협력위원과 금기창 의원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윤영남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김기창 의원원장은 “세브란스병원 발전을 위해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김종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응원해주시는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종원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세브란스 의료진에게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누구보다 세브란스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손흥규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의료원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 김종원 회장의 누적 기부금은 5억 2000만원이다.

김희선 삼원중공업 회장 김구열 대현엔지니어링 회장 각 1억원



김희선 김구열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김희선 삼원중공업(주) 회장과 김구열 (주)대현엔지니어링 회장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으로 각각 1억원씩 후원했다.

김희선 회장은 “업계 동료이자 선후배님들과 함께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돼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구열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병원 기부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앞으로 지금처럼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이 되어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희선 회장과 김구열 회장은 이규석 제이에스디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소개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후원을 시작했으며,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김한 알토스 벤처스 대표 10만달러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110주년 미래기금)
김한(Kim Han) 알토스 벤처스(Altos Ventures) 대표가 최근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110주년 미래기금)으로 10만달러(1억 4175만원)를 기부했다.

김한대표는 “정영수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치과대학의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해 후원금을 전한다”며 “치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한 대표는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었다.

이상춘 상록수나눔재단 이사장 1억원

의과대학 장학기부금

이상춘 상록수나눔재단 이사장이 최근 의과대학 장학기부금으로 1억원을 전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상춘 이사장 부부, (주)에스씨엘 박우영 부회장과 최재영 의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춘 이사장은 “작년에 첫 장학금을 후원한 이후 두 번째로 나눔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이상춘 이사장은 “작년에 첫 장학금을 후원한 이후 두 번째로 나눔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최재영 의대학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뛰어난 의사들을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상태 에이디티 대표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김상태 (주)에이디티 대표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원활한 응

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실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상태 대표는 “연세대 동문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더 나은 진료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태 대표는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인연을 시작했다.

한편, 이상춘 이사장의 누적 기부금은 이번 후원을 통해 2억원에 이르렀다.

퍼시스목훈재단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소아청소년 희귀난치질환 극복기금

퍼시스목훈재단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사회사업후원금, 소아청소년 희귀난치질환 극복기금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후원했다.

퍼시스목훈재단은 2023년 매년 1억원씩 총 3년 동안 강남세브란스병원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년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기부금은 치료비는 물론 연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퍼시스목훈재단은 강남세브란스병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와 지역 인재 양성 장학금 후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이경옥 후원자 1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이경옥 후원자가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이경옥 후원자는 세브란스의 우수한 진료와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명받아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향한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후원금을 전했다.

한편, 이경옥 후원자는 2021년에도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한 바 있다.

김동수 로이병원 대표원장 1억원

재활병원 발전기부금

김동수 로이병원 대표원장(의대 01년 졸업)이 최근 재활병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약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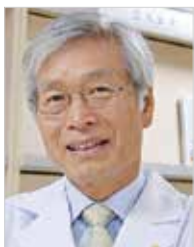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동수 대표원장과 금기창 의원원장, 조성래 재활병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수 대표원장은 “국내 최고인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재활 의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모교에서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창 의원원장은 “재활병원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결심해주신 김동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세브란스 재활병원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병인, 이병석, 노성훈 연세대 명예교수 1억원



이병인



이병석



노성훈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20프로젝트)

이병인, 이병석, 노성훈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

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20프로젝트)으로 1억원의 후원금을 전했다.

이번 후원금은 이우주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신축 의과대학 내 창명 이우주 기념홀 건립에 사용된다.

한편, 창명 이우주 박사의 장남인 이병인 명예교수와 차남인 이병석 명예교수, 그리고 사위인 노성훈 명예교수는 대를 이어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문회소식

'제중포럼 세브란스 역사탐방'

의대·원주의대 총동문회 역사·문서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제중포럼 세브란스 역사탐방을 개최하며 세브란스와 연세의학의 역사와 정신을 함께 돌아봤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범 총동문회장, 박형우 제중포럼 지도교수를 비롯해 동문 2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해 한국 의료선교와 근대의학 발전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묘역을 둘러봤다. 특히 존 윌리엄 헤론, 애나제이콥슨, 더글라스 에비슨, 호러스 언더우드, 애니 엘러스, 에바 필드 선교사 묘역을 탐방하며 세브란



스와 연세의학의 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재동 제중원 옛터와 헌법재판소 일대를 탐방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참석자들은 저녁 식사와 함께 동창회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은서 중앙위원회 부회장과 도

윤정(87년 졸) 다나비비인후과 원장이 300만원, 1999년 졸업동기회가 3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식사 후에는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역사관으로 이동해 세브란스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탐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세를 빛낸 동문상'·공로상 수상자 초청 만찬

의대 총동문회는 최근 1월 개최된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서 '연세를 빛낸 동문상'을 수상한 안덕선 동문과 공로상을 수상한 의대 천근아 교수(정신과학)를 초청해 축하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인철 교내부회장과 박상현 부회장도 함께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연세 의학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문들과의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은영 동문과 간담회 개최

의대 총동문회는 지난달 11일 오은영(의대 91년 졸) 동문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최재영 학장도 함께

참석해 모교와 동문사회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 동문이 처음 육아와 부모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

기부터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부 갈등과 가족 해체 등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

게 전했다. 특히 오 동문은 정신건강과 가족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

며, 앞으로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브란스 동문회장배 테니스대회

세브란스 동문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달 17일 연세대 교수테니스코트에서 12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수준별(금배부·은배부) 복식 경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배부에서는 김진기 동문(의대 91년 졸)이, 은배부에서는 정대현 동문(의대 76년 졸)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대회 운영을 총괄한 장지호 회장은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대회를 후원해 주신 총동문회와 대회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신 교수테니스회에도 감사드린다"며 "테니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동문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윤영 동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



남윤영 동문(의대 94년 졸)이 지난달 13일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4월 20일부터 2029년

4월 19일까지 3년간.

남 센터장은 국립서울병원 시절부터 정신건강 분야 진료와 정책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국립서울병원 기획홍보과장으로 재직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설립

과정에 참여했고, 이후 기획조정과장과 의료부장 등을 역임하며 기관 운영 전반을 경험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신병원·시설대응반장을 맡아 정신의료기관 방역과 대응 체계를 총괄했다. 또 미국 약물 남용정신건강서비스청 국제 펠로우로 활동하는 등 국제 교류 활동도 이어왔다.

남 센터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맞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석원 화이어 대표 1억원



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양석원 화이어(주) 대표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사회사업후원금 1억원을 후

양석원 대표는 "어려운 환경의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돕기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후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 내역을 공유해줘 감사하고 앞으로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스트오브미여성의원 5000만원



송 인 옥



김 진 영



구 화 선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난임 및 생식내분비학 발전기부금

베스트오브미여성의원이 최근 강남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난임 및 생식내분비학 발전기부금 5000만원을 약정하고 3000만원을 먼저 후원했다.

송인옥 대표원장, 김진영 대표원장, 구화선 대표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산부인과 응급환자를 함께 진료하는 상호진료협력 관계에 있어 든든하고, 앞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대한민국의 난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기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원장 5000만원



5000만원을 약정했다.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5020프로젝트)

남궁기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원장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으로

남궁기 원장은 신축 의과대학 내 정신과학 교실 역사관의 성공적인 조성을 응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남궁기 원장은 새병원 건축기부금,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발전기부금, 원목실 절기예배 후원금 등 꾸준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선순규 용정산업 대표 3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선순규 용정산업 대표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3000만원을 전했다.

이번 후원금은 응급환자 진료 프로세스 고도화와 효율적인 진료공간 조성 등 응급실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선순규 대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세심한 진료에 항상 감사하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순규 대표는 2023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매년 꾸준히 후원하고 있으며 TIF 미래발전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기고 | 문은수 선교사(의대 97년 졸, 2026년 연세의학대상 봉사 부문 수상자)

굳게 닫힌 복음의 문, 의료로 열어간다

L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소개로 한 시리아 난민 형제를 만나기 위해 S 팔레스타인 난민촌 지역을 방문하게 됐다. 그런데 그 형제가 살던 S 팔레스타인 난민촌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복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 지역에 대해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심지어 의료선교사의 꿈을 꾸며 우리 팀과 의료봉사에 함께 하던 한 의대생조차 이 지역 의료봉사에 무서워서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레바논 그리스도인은 그 지역에 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왜 이들이 그토록 이 지역을 무서워할까 궁금했고,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무슨 사건이 있었나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이 지역이 L국 기독교 민병대에 의한 대학살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었다. 이곳이 내전 중이었던 1982년 발생했던 한 사건으로, 팔레스타인 때문에 L국 내전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가 S 팔레스타인 난민촌 지역을 둘러싸고, L국 기독교 민병대가 난민촌 내 주민 수천명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인해 이 지역으로 피난 온 이스라엘 국경 근처 출신의 가난한 시아파 무슬림들도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은 물론 시아파 무슬림도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하게 됐고, 이후 시아파 무슬림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고자 조직한 민병대가 바로 헤즈볼라이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끊임없는 전쟁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40여년이 지났는데도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역을 두려워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기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아파 무슬림 지역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국가임에도 오랫동안 복음에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럼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복음을 전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이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의 간절함과 의료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는 소명감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럴 때 여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에서 단기 의료봉사팀을 초청하고 이 지역들을 의료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이동 진료 및 가능하다면 작은 진료소를 여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하는 소망함이 생겼다. 이후 단기 의료봉사팀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지역 단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장소와 협력할 단체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 대부분은 이슬람 단체였지만 가까이 그들의 공간을 내어주면서 함께 하고 싶어했다. 그렇게 그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사랑의 섬김 앞에 감사해하면서도 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거나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어떤 장소는 꾸란 학교로 사용되는 곳이기도 했는데 그곳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는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랑의 섬김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겨 나갔다. 그럴 때 간혹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했다. 이때까지는 그곳에서 섬긴다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고, 3년 이상 그 지역을 섬겼음에도 믿는 자 한 명이 생기지 않았다. 이처럼 영적으로 강력한 지역이었다.

그러던 2020년 코로나 상황과 B도시 항구 대폭발사건을 거치면서 L국 경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 달러 환율이 70배가량 폭등했다. 이로 인해 한때 정부가 공급하는 전기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되는 상황까지도 갔다. 이처럼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했는지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더 많은 의료팀과 이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섬겨 나갔고, 이후 의료팀 기간에 만났던 환자들을 가정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섬기면서 나아갔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하는 형제자매들이 한명 한명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



고 2023년 여름 시아파 이집마 2명, 시아파 청소년 1명, 팔레스타인 형제 및 시리아 형제자매들 7명이 함께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었다. 이 이후에는 제자로 세워진 팔레스타인 형제와 더불어 그 난민촌 지역 사회 깊숙이 접근하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하마스 와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곳 팔레스타인 난민촌에도 시위가 일어나는 등 이 지역 사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에 그 지역 리더 그룹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의료적 섬김을 요청해 오면서 장소와 자원봉사자까지 직접 제공해주었다. 사실 이 지역 섬김 초창기부터 정기 진료를 꿈꿔 왔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고, 현지 의료 면허가 없어서 지속적인 진료 시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한 그들 중 의사가 있어 그 의사 이름으로 마음껏 진료도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기 진료와 이후 이어지는 가정방문을 통해 이 과정에서 만난 형제가, 때론 가정 전체가, 때로는 발렌티어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이 지역 가정집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 모임도 생기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이들 중 팔레스타인 형제들만 8명이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

었다. 이처럼 은혜가 넘치던 그즈음 이스라엘-헤즈볼라간 전쟁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섬기는 팔레스타인 난민촌 지역이 직접 미사일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떨어지는 미사일 폭격으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바닷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피난 생활을 해야하던 그때,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교회 공간을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의료로, 음식으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들과 운대는 지역적으로 갈 수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시아파 무슬림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주말날에는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친척들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후 교회는 현지인 리더까지 세워지는 정도로 성장하게 됐다. 주님은 의료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이 지역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이다.

올해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전쟁은 더 심각한 수준이 되어 약 12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 전쟁으로 폐쇄된 모든 지역으로 의료로 섬기면서 기존의 팔레스타인 지역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전 지역까지 의료로 닫힌 복음의 문을 열어가기를 소망해 본다.

간호대, TSMU와 교육·연구 협력 확대



간호대학이 지난달 19, 21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티슈켄트 국립 의과대학교(TSMU) 대표단을 맞아 교육·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에는 TSMU의 F. 아지조바 연구혁신 부 부총장, N. 에르가소프 국제협력부서장 등 7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19일에는 간호대학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석사과정 연수생들의 연구발표가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학업 과정과 연구 활동,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연세간호에서의 학문적 성장 과정과 연구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21일에는 이현경 간호대학장과의 간담회 및 간호대학 주요 시설

투어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간호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역량, 글로벌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를 포함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간호대학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제중원보건개발원이 수행하는 '티슈켄트국립 의과대학교 교육연구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며 우즈베키스탄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TSMU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승의날맞이 헌화 의료원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 동상에 헌화를 진행했다.(사진 위) 강남세브란스병원도 독일 재정 차관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짓는 영동프로젝트를 이끈 김효규 교수 흉상 앞에서 헌화식을 실시했다.(사진 아래) 강남 소아청소년과에서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부터 병원 차원으로 격상했다.